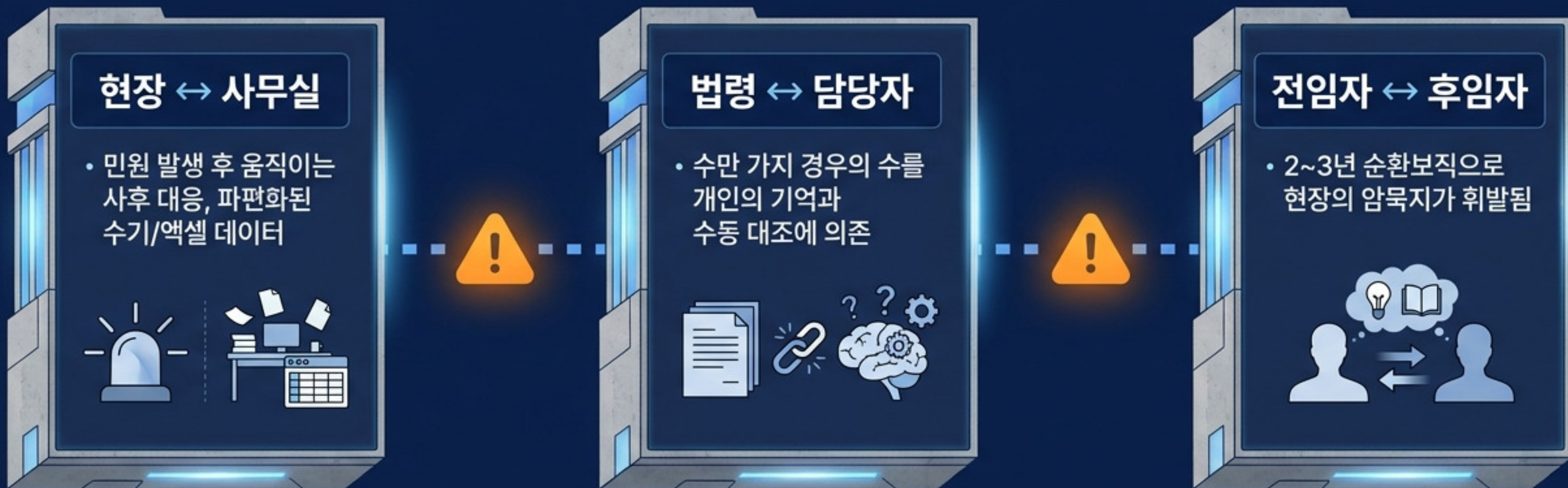


행정을 잇는 공공개발

16년의 현장 경험과 AI 코딩으로 단절된 행정의 흐름을 다시 잇다

강남구 도시계획과 강진규 | 일반행정 분야

행정의 진짜 문제는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흐름의 끊어짐'입니다.



기술은 무언가를 새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끊어진 지점들을 잇는 도구여야 합니다.

단절을 이은 3대 공공개발 연결망

정당현수막 관리 (현장↔사무실)

사후 대응 → 위치 데이터
기반 사전 관리

기간 경과 민원
약 70% 감소

옥외광고 3종 (데이터↔판단)

수동 검색 → 4단계
규칙 엔진(AdJudge) 자동판정

민원 검토시간
15분 → 1분 이내
(약 90% 감소)

LLM Wiki & 업무보고 (경험↔조직)

경험 휘발 → 조직의
공식 지식 파이프라인 구축

업무 질의 265건 지식화,
수합 반복 제로화

전체 예산 0원 / AI·노코드·바이브 코딩 자체 개발 (약 35일 소요)

사후 민원 대응에서 위치 데이터 기반 '선제적 현장관리'로

데이터 필터링:

13개 활성 정당, 행정동별·상태별
즉시 검색 및 엑셀 출력

정당별 (13개 활성 정당) ▼

행정동별 ▼

상태별 ▼

↓ 엑셀 출력

총 등록수: 107건

활성: 54건

만료: 53건

공간 시각화: 카카오맵 기반
활성 54건, 만료 53건 분리
(빨간 핀 = 만료)

사전 정비 동선:

현장 출동 전 만료 위치
파악으로 철거 동선 최적화

..... 민원 접수 → 현장 확인 → 수기/엑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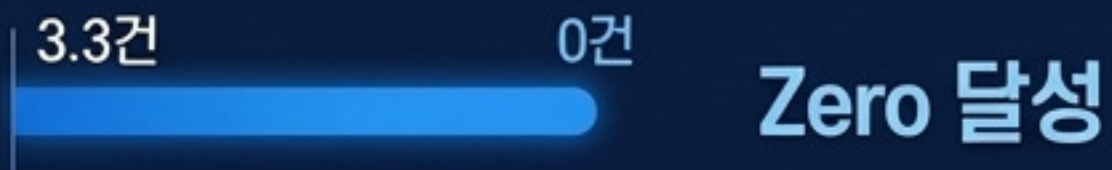
— 스마트폰 지도 확인 → 만료 즉시 사전 정비

기간 경과 민원 70% 감소, 전국 지자체 확산의 표준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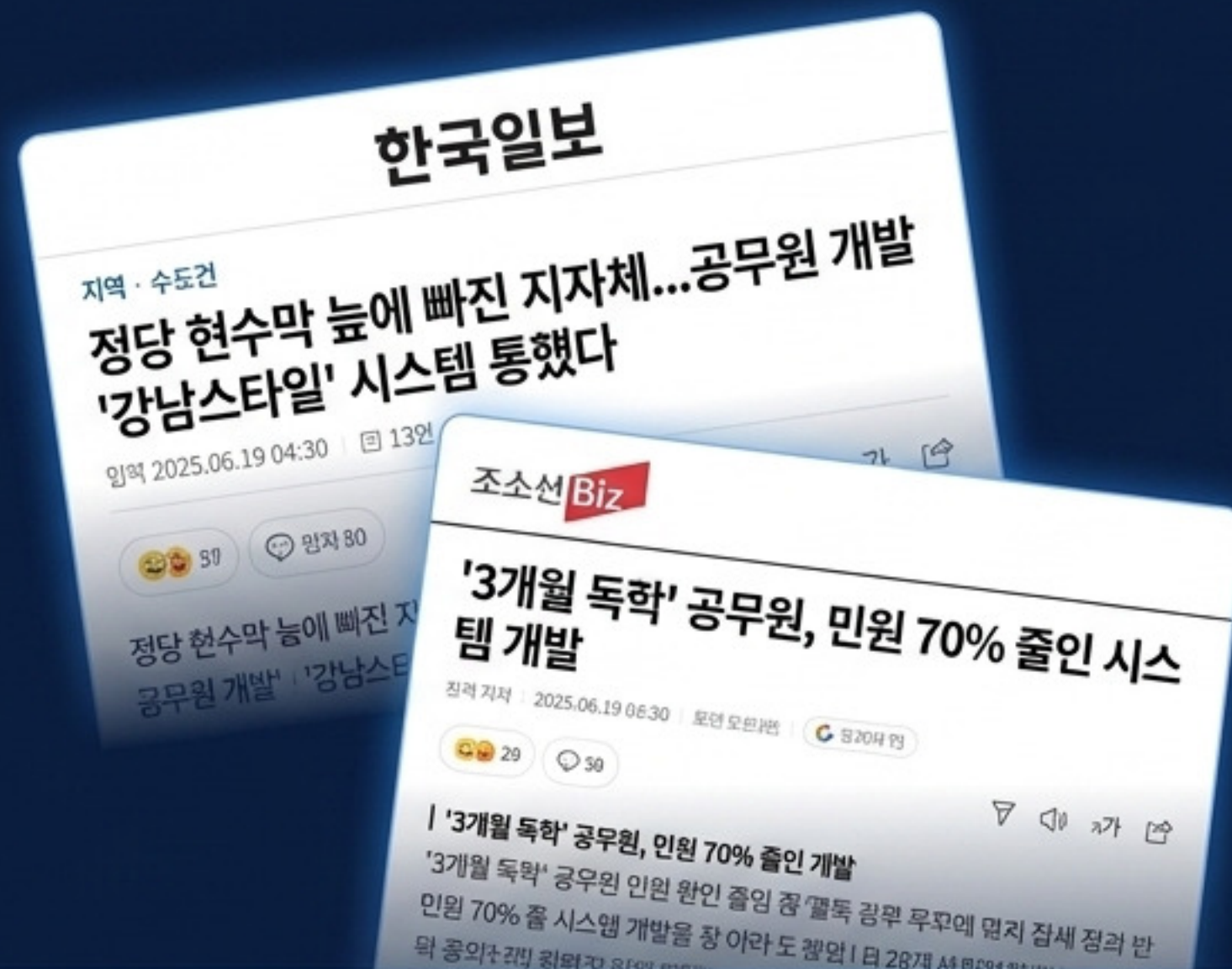
기간 경과
민원



금지 장소
설치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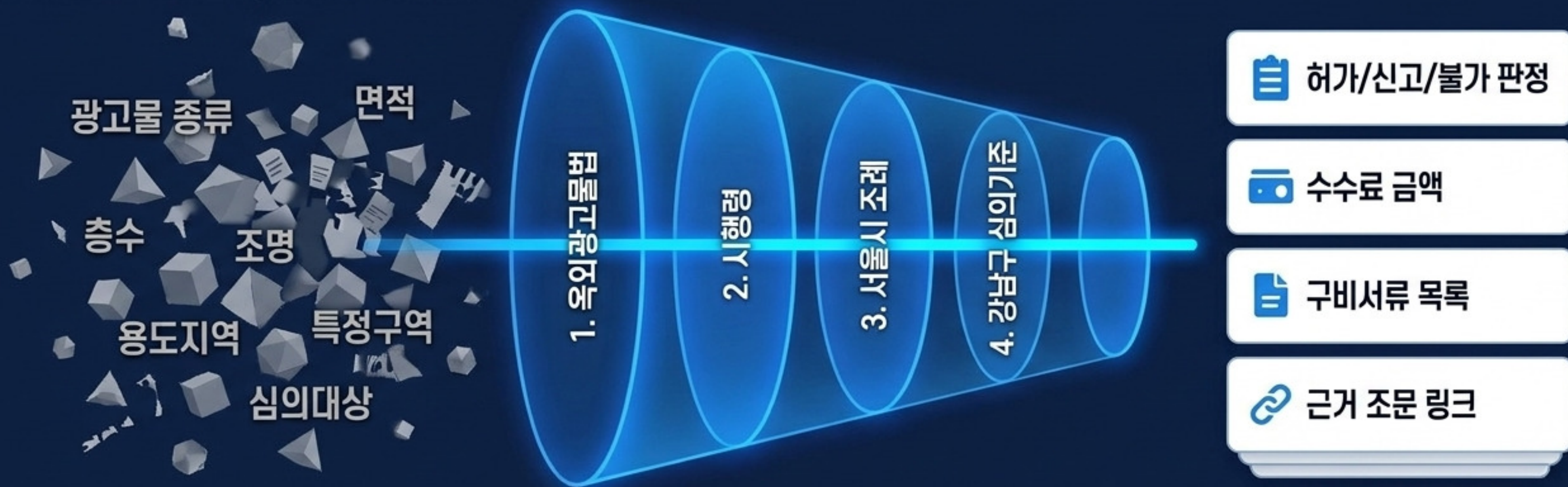
설치 방법
위반 민원



성북구, 파주시, 경남도청, 세종시, 동작구, 김포시, 대전 동구청 도입 문의 및 확산 중

10분이 걸리던 복잡한 법령 대조, 1초 만에 끝나는 규칙 엔진(AdJudge)

민원 1건당 평균 10~15분 수동 대조



동일 입력 동일 결과, 담당자 개인의 경험 의존도를 낮추다

AdJudge 광고판명 시스템

광고물 정보 입력

광고물 유형: 용도지역:

설치 층수: 면적 (㎡):

포형 종류: ☒ 앞면 ☐ 내부부형 ☐ 디지털/태운

광고 종류: ☒ 자사광고 ☐ 타사광고

추가 조건: ☐ 내야권도 감면 ☒ 보도 침면

세로 길이 (m): 가로 길이 (m):

물줄폭 (m): 두께 (mm):

지면 이격 (m): 성단 높이 (지면 기준 m):

1면 면적 (㎡): 3면 높이 (m):

13종 광고물
조건 입력

판정 매칭률:
84% → 98%
8회 반복 검증 완료

민원 검토 시간: 15분 → 1분 이내 단축

112 ↓

46 ↓

접수-검토-소심의-점검-허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통합 (보도자료 기준 148건 관리 중)

눈으로 찾던 이격 거리 검토, 위치 기반 공간 데이터 분석으로 전환



기존: 지도와 서류를 번갈아 확인하며
자(Ruler)로 개별 검색



업무의 진짜 어려움은 법령 검색이 아닌
‘경험의 휘발’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민원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쌓아 올린 강력한 행정 경험과 암묵지.

2~3년 순환보직 사이클과 함께
조직에 축적되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흘어지는 암묵지를 살아있는 지식 매뉴얼로: LLM Wiki 파이프라인



데이터: 실제 업무 질의응답 265건 → 11개 유형으로 완벽 분류 및 지식화



조직 내부의 낭비도 끊어낸다: 격주 업무보고 자동 수합판

과거의 단절 - The Past

잡은 한글(HWP) 양식 깨짐

각 팀 엑셀/한글 무한 복붙 제출

수합 담당자 순서 정렬 및 노가다

작성자도, 수합자도 피곤한 흐름

현재의 연결 - The Present



작성자는 덜 쓰고, 수합자는 덜 고치고,
보고자는 더 빨리 확인한다.

지난 회차 복사 기능 및 읽기 전용 공유 화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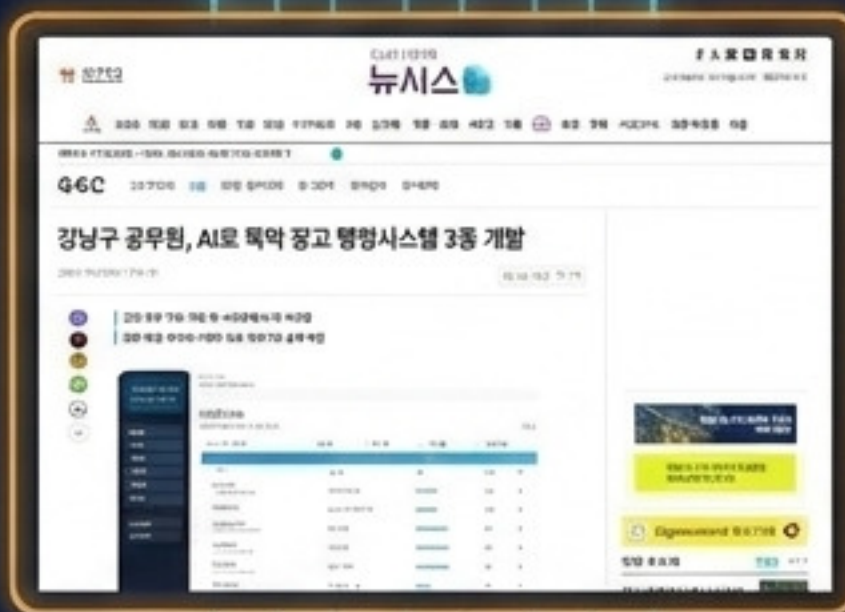
예산 0원, 35일의 기적. 공감(Empathy)이 제1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 16년의 도메인 지식

현장 정비와 민원 처리 경험이
'진짜 문제(Pain point)'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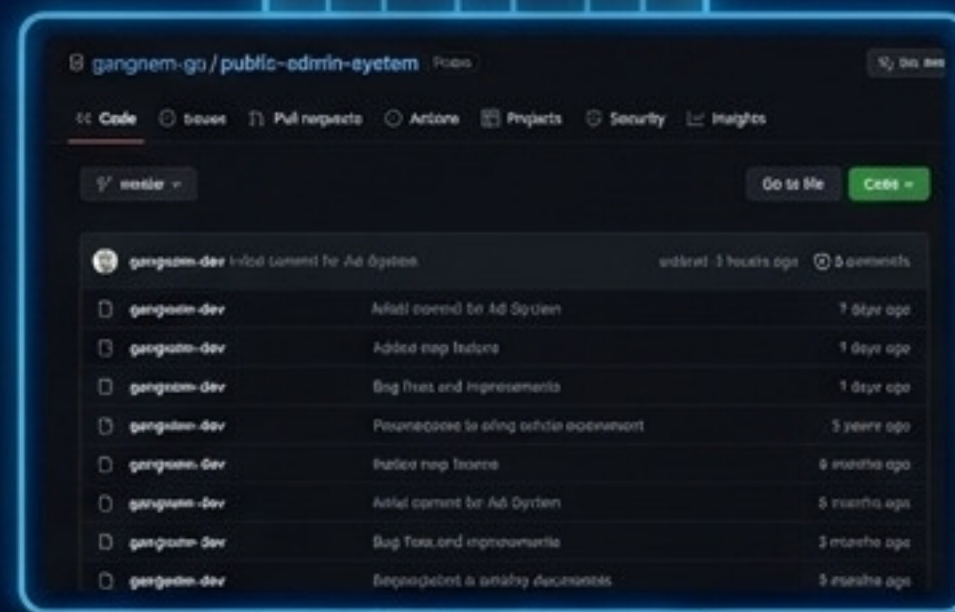
2. AI 코딩 도구의 활용

바이브 코딩으로 비전공자의 한계 돌파.
단 35일 만에 3종 자체 구축



3. 오픈소스 기반 확산

타 지자체 즉시 이식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코드 공개



기술을 위해 문제를 찾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기술을 잇습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현장 정비

개인의 기억에서 조직의 지식으로

로컬 LLM 시대를 대비한
행정 암묵지 축적

새로운 공공개발의 표준

예산 없이, 비전공자도 AI와
협업하여 전국 확산을 주도

단절된 현장, 데이터, 조직의 지식을 연결하여 빠르고 정확한 'AX 행정'의 청사진을 완성하겠습니다.